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Social Welfare Council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하나센터
복한이웃주민을 위한 지역자원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302호

제 231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충북 1호점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

충북유일 남성독거노인 위한 힐링센터 열어… 건강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예정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과 충청북도 정상엽 국장 외 귀빈들이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음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남성 독거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자립지원 프로젝트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했다. 본관 1층에는 교육실과 운동실, 2층에는 요리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개소식에는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 충청북도 정상엽 보건복지국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재현 이사, 조경연 전무, 충북도내 노인복지관 관장 및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남성독거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는 자신감 함양을 위한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 프로젝트(요리교실)과 다양한 자립지원 교육(점리수납, 휴대폰 활용교육, 사회성 강화 교육 등)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우울증 해소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한 난타교실, 음악기 체조 등 그리고 만성질환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증진 교실 등 다양한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통계청(2018)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독거노인비율은 2016년 7.9%에서 2017년 8.3%, 2018년 8.6%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독거노인은 2015년 기준 5,788명으로 28.1%로 노년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충북노인종합복지관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충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개소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내 저소득 남성독거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통해 효과성과 노년기 일상생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내 생활과 연계한 웰스케어존 구축과 체계적인 개인별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충청북도에 오호정 개소도 고려중인 상황이다.

한편, 김준환 관장은 "노인복지관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의 사업과 자원연계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과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하여,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며, 그 첫 번째 결실이 충북 최초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라고 전했으 며 현재 남성독거어르신 50명이 참여하고 계시며 금년 연말까지 6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00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과 지역 내 독거어르신 지원을 위한 선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늘 고민하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충북, 청년 일자리 위해 103억 투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36억 확보

충청북도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03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지원, 창업부자생태계조성, 민간취업연계 등 3개 유형에 총 11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일자리대책(18.3월)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은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및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창업부자생태계조성형 사업은 청년창업 및 민간 취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희망센터 조성, 청년 혁신창업 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에 5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은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충북청년 기업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한다.

금번 확정된 사업은 사업 유형별, 도·시군별로 사업 공모, 참여기업 모집 및 사업대상자 모집 · 선발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 도 · 시군, 사업 공모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지역 청년들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진행될 참여자 공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옥천보사)

시범운영 마치고 개소식… 장남감 대여 · 각종 상담 '호응'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정경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옥천보소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오다 12일 정식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

노리마을 옥천 분소는 2억 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난감 도서관 및 수유실, 양육 상담실, 부모교육 및 보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한 교육장 설치를 완비하고 충북도내 지역별 균형 있는 육아서비스제공과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시 · 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장내 프로그램으로 양육자로서의 부모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주1회 전문상담요원이 상주하여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가정 내 문제,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이사랑플레네 양육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두 달여의 시범운영기간동안 장난감도서관 회원에 가입한 부모는 110명, 장난감은 983건이 대여되었다.

또 8회의 부모교육과 4회의 부모체험, 부모상담이상담은 17건이 지원되었다.

옥천분소 노리마을 회원 가입 후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신청했다는 3살 여아의 어머니인 이효민(가명)씨는 "장난감을 빌리는 것도 좋았지만 평소 궁금했던 아이의 심리와 양육스트레스상담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쁨을 안았다"며 옥천분소 설치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장난감도서관에서 부모 · 자녀 체험교육을 하고있다.

옥천분소 이용대상자는 옥천군 거주 영유아 양육자와 옥천에 직장을 둔 부모, 옥천에 소재한 어린이집 등 모두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화요일~금요일 10시~17시까지, 토요일은 10시~16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10시~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옥천분소 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옥천군내 부모의 양육비를 절감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들의 양육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 문화시설 "몰카 안돼요"

9일부터 공공문화시설 몰래카메라 범죄예방 점검

충청북도는 9일부터 도내 11개 시 · 군의 도움을 받아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몰래카메라 범죄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이전하고 편안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북부권에서는 단양군, 남부권에서는 영동군을 시작으로 공공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등 60개소 문화시설에 대한 점검이 각 시 · 군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범죄예방과 도민들에게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6월 경찰청, 교육청 등과 함께 성인입 입대 불법촬영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불법촬영 피해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한 바있다.

또한 도는 이번 시 · 군 점검에 앞서 충북문화관, 문화예술인회관,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문화재연구원 점검을 추진하였으으며, 다행히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충북도, '마을공방 육성' 국비 1억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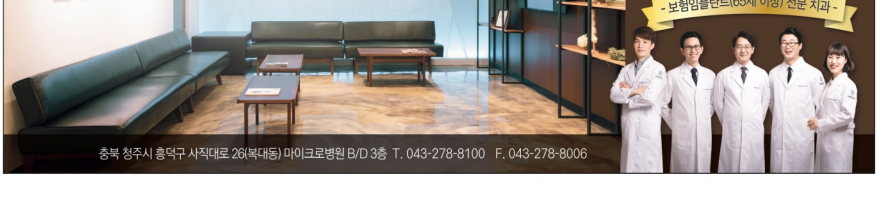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방(Village Works : 마을공동 작업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1억을 확보했다.

충북도에서는 청주시와 공동으로 동청주 농촌교육문화센터 조성 운영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하여 전국 21개 공모사업 중 도개를 선정하는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동청주 농촌교육문화센터 조성 운영사업은 구)미원남성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실현과 주민화합을 위한 사회봉합사업, 활기찬 농촌을 위한 지역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마을공방 사업은 그병화되어가는 농촌지역사회에 귀농 · 귀촌을 유도하고 토착인들과 귀농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 공동체 화해를 위한 사회통합형 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동청주 농촌교육문화센터 조성 운영사업은 신화사 미륵면 이장단 협의회장을 비롯한 미륵면 주민 80인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추진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다자녀 가정 금전적 덜어드려요"

보은,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 지원… 60세부터 수령

보은군은 4일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3 · 4월 셋째아 출산모 5명에게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명에게 연금보험 증서를 전달했다.

정상혁 군수는 "연금보험증서를 전달할 때마다 셋째아가 많이 태어나는데 앞으로 갈수록 부럽다게 생각한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인구증가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연금보험 전달식이 더 많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한 단기적인 금전 지원이 출생률 제고와 출산모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어려니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해 출생률을 제고한다고 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을 출산

정상혁 보은군수가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게 연금보험 증서를 전달한 뒤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도록 해 최소 30년을 보장한다.

만약 연금수령 도중 출산모 사망시 자녀들이 남은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과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컨설팅'

정책 방향 · 업무현황 등 다뤄… 담당자 역량 강화 제고

과산군이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8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컨설팅'을 9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올 들면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복지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이효진 사례관리 정책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군 희망복지지원단, 과산읍 · 칠성면 · 청안면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팀장 및 담당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는 10월까지 2회 이상 진행예정인 복지 컨설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주요 정책방향, 통합사례관리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 기반업무현황 공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양희근 군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노인 사회참여 확대 '총력'

노인 일자리 참출기업 인증 사업 대상기업 발굴

증평군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참출 기업 인증제'대상 기업 발굴에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인증제는 충북도가 2014년부터 전국 처음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5%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군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신청 접수 및 발굴을 진행한다.

접수 및 발굴 뒤 기업은 충북도의 서류 및 면지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11월까지 대상 기업의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및 인증서가 주어지고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지원 지원 우대, 해마다 개최되는 해외 판촉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증평군 주민복지실로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충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충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4일 충주시문화회관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양성평등 실현! 양성이 웃다. 충주가 웃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악공연에 이어 1부 기념식에서 건전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내빈들의 기념사, 축사, 2부 행사로 '김제동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클래스(Class)'가 열렸다. 2부 행사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과 청년층이 이유 있는 주장과 꿈은 세대가 바라보는 사회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평 시내버스 노선 개편

증평군이 2018년 상반기 수립된 지역주민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반영해 15일부터 일부노선을 확대 운행했다.

군은 증평~소정장(율리)구간을 9회에서 11회로 증평~송산리구간을 4회에서 5회로 증편한다.

또 증평~소정장지 구간도 14회에서 16회로 확대 운영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8월부터는 보강된 불들이장과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에 1일 5회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반면 증평~오창 구간의 운행횟수는 8회에서 3회, 증평~청원리 구간 운행횟수는 8회에서 7회, 증평~괴산 운행횟수는 17회에서 16회, 지역간 증북 운행구간인 증평~숙고재 구간은 11회에서 10회로 감축 운행한다.

인재유출 그만… 진천,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

진천 '청년 창업 점포 지원사업' 참가자 31일까지 접수

진천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선정하는 사업이다.

군은 청년창업점포 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약 1억 2천600만원을 투입,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및 창업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지역특화지원팀에 또는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공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 진천군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7월 31일까지다.

군은 창업을 위한 홍보비, 재료비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정착을 돕는다.

창업 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1인당 최대 250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주요로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외부유출 방지 효과를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민선을 기울겠다"고 말했다.

충주 경로당 538곳 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내년 6월 13일까지 상해 · 손괴 최대 5천만원 보장

충주시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행여나 경로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경로당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체 538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법 3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3조항기입 의무 규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비용 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전체 경로당 538곳 가운데 자체 운영비로 확인보험에 가입한 122곳을 제외한 536곳을 대상으로 이번에 확인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아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내년 6월13일까지(1개월)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 대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사고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지원이 마을별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주 "임산부 운전자 배려해주세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부착차량 전용구역 주차
주차요금 반값 할인 혜택

청주시 보건소가 6월 29일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했다.

이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를 편이를 위한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 확인서 등을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명당 차량 1대의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외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시설 주차요금의 50% 감면 혜택도 있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정용상 상당보건소장은 "이번 조례의 시행이 임산부의 이동과 보장과 교통안전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대형화재 대비 더욱 철저하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제천시는 자체 하소동 복합건물 화재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형 화재사고를 대비한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전달하고 관내 기관단체에게도 GS슈퍼 중앙점, 케이바이스 금호슈퍼점, 서신시장, 홀몬어린 화랑점, 제천제일시장, 한그루시장, 오후기, 단비상사, 단진도서 8. 중화점, 넬라런 중화점, 다온중화점, GS25 중화대로점

제천시 재난안전과

단양시장, 과산장터, 신산나드, 신선초, 온심사, 삼화, 제중당약국, 불우한 서이숙, 유인숙, 장국희, 미혜오버마기, 부곡종합시장, 화라버제조사, 제천제중고, 미라시중, 한삼림속사랑, 주상봉이마리

옥천군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 말씀하소 구가네 농이보감, 조태주 감자, 독도기본, 행운목, 미가한정식, 이가화로, 옥천정감로리라쌈밥, (주)한일푸드

영동-늘푸른그룹

무궁화리감홍로, (주)행열육가공

보은군기초푸드센터 (T. 543-6255)

사물우마보본로, (주)사물정육, C.A.늘재로, 롯데슬상정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음성군무드센터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나눔원상림농원, 영양제양장단, 김미자부녀회, 단진도서초(금왕), (주)이지자연연, (주)후드센터, 김정철소비공국, (주)문보배소물, (주)물우주, (주)동부팜

진천-늘과기쁨푸드센터

파르페제빵, 진천장관점, 태평 베이스샵, 신토피아, 묵지맛, 김정식, 리브가쌀이두찌뽕, 김수정, 밀리레이밀이두찌뽕, 김수정, 밀리레이밀이두찌뽕, 이스토두, 제제사랑, 명가떡집, 아사식품, 명가떡집, 생기전시물, 밝은레이오뜰

충주기초푸드센터

고인돌식품, 대하유통, 밀리켄충주교한점, 역보의사부, 두레라온 주의점, 롯데제과충주영업점, 삼성정자유통, 삼립상회, 서울우유지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정과 은혜정과, (주)이림농산, CJ대한통운 제천대리점지초충주점과, 하나로제과(주)충주지점, 한마음정과

제천시재무드센터

진라유업, 두리에떡계, 롯데제과 제천, 빙상제씨푸드, 윤은용, 씨밀푸드, 오후기 제천점, 오후기 태성김치, 푸른초 활일리리, 360할인마트, 크리스마크밀제한중앙로, 로수상사

단양군푸드센터

진천면사랑, 진천상무드, 음성(주)스, 음성주리스, 충주리사나, 제천부론트, 롯데칠성, 일동청정원, 제천씨앙무드, CJ, 진천 단양(주)정원, 단양두승스몰,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빠라미제 단양대리점

단양-늘과기쁨기초푸드센터

C.J.늘재로, 롯데칠성정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리리라라상점제, 신선초, 하림, 일린시물, 한도, 쎈레이무드, 대상정정원

6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대한 진천센터, GS리테일 일동이물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늘 제제센터, 대상 일지죽센터, 대상 일지센터, 대상 정리지은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식품제조협회, 송원푸드, 한우월회, (주)파스텐, (주)대웅푸드, 롯데푸드, 제과부문, C.J제일제당본부, 송원푸드, 정주대,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롯데칠성 대전

어린이 의견 경청하는 '눈높이 행정'

옥천, '아동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 토론회' 개최

참여자 80% 이상 아동… 현실성 있는 의견 '눈길'

옥천군내 학생, 학부모,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군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토론회가 6월 30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동과 부모 · 보육시설 종사자 등 의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군민 관심도를 높이고, 이 시대의 주역인 아동을 포함한 군민들의 시각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아동친화도시의 근본적인 이념에 맞춰 전체 청여자의 80% 이상을 아동(초등생 14명, 중등생 37명, 고등생 24명)으로 구성했으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산성 있는 토론을 펼쳤다.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문을 연 토론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7개 영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옥천군 아동친화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나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옥천'이란 주제에 맞춰 진행됐다.

모둠별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자신있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아동이 직접 계획해 참여하는 청소년 페스티벌을 만들어 주세요'를 비롯해 "학교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제이마트 사거리 교통 불편 해소해주세요", "횡단보도 등에 걸쳐 있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압중 조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 등의 현실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옥천여중의 한 학생은 "군정에 참여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론회를 자주 만들어 달라"고 도 말했다.

군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우선순위와 실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8월 중 온라인 조사를 갖고 소요 예산액과 추진가능성등을 검토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4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 아동이 낸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아동이 년 목소리에 경청하는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요일별 다양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세요"

군청, 맞춤형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연금 · 건축 · 법률 등

충북 음성군이 요일별 맞춤형 원스톱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대한법무사협회 음성군지부(지부장 박용원)와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민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나 필요 서류를 법무사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음성군지부 소속 13개 법무사에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군청 민원과의 전용 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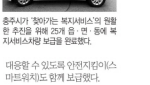
무료 상담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해 제공한다.

현재 군청 민원실에서는 매일 지정측량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화요일은 국민연금, 수요일은 건축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협약으로 목요일 법률 무료 상담이 추가돼 요일별 맞춤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충주 "도움 필요할 땐 복지자동차를 불러주세요"

25개 읍 · 면 · 동 차량 보급
'안전 스마트워치'도 지원


충주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개 읍 · 면 · 동에 복지서비스차량 보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주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개 읍 · 면 · 동에 복지서비스차량 보급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복지여브화가 완료된 동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차 8대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차량이 미 보급된 17개 읍 · 면 · 동을 대상으로 2억4천600만원을 투입해 경형차량 17대를 보급했다.

복지서비스 차량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보급하는 것으로 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 주민 생활실태 확인, 위기가구 긴급지원, 생활필품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된다.

시는 차량 보급과 함께 복지공무원들이 현장 방문 시 대상자로부터 폭력 등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지팡이(스마트워치)도 함께 보급했다.

증평 "내년 살림, 주민 아이디어 듣습니다"

방문 · 인터넷 설문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증평군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해 효과적인 재원 분배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제도 운영을 위해 군은 오는 31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예산편성 방향 설문조사는 내년도 군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우선 추진사항 등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한 서면 설문과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사업 공모도 실시한다.

단, 국가사무 및 국 · 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기 시행 중 사업 또는 운영 중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액, 공공성 결여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제안은 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 기획감사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군청 기획감사실, 읍 · 면 접수)도 가능하다.

설문조사결과와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구성돼 제안된 사업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실질적 예산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년도 예산안 반영 및 확정 결과는 오는 10월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앞소 군민 여러분이 느끼셨던 불편사항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고견을 반영해 마유 투명하고 적임 있는 제정을 운영하고자 함이니,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괴산 희망복지지원단 · 괴산우체국, 복지사각지대 위해 '맞손'

긴급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충북 괴산군 희망복지지원단은 괴산우체국과 함께 관내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군 희망복지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되며,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괴산우체국 공익재단이 협업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중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해 긴급생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복다스크 수술 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차(화성제, 창안면)와 주거환경이 열악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1차(비세, 사리면) 등 2명에게 의료비 및 주거환경개선비가 지원됐다.

제천, "목요특강으로 새로운 배움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명사 초청 시민 강의

제천시가 100세 시대 삶을 변화시키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고취 및 인문교양 함양을 위한 '시민맞춤형 목요특강'을 시작했다.

첫 강좌는 19일 오후 3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이태훈 여행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세계때마 인문학여행'이란 주제로 그 시작을 알렸다. 강연을 맡은 이태훈 여행연구소장은 정 스포츠서울, 월간조선 기자며 매일경제 여행칼럼니스트로 기업, 대학교 등 각종 강연 현장에서 인문학 감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저서로는 '여행의 sonne세계를 바꾼 책, '세상의 속살을 엿보다, 끌리다 가닐다 흘러다가 있다.

목요특강은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별채실 예정으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매달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주 "미숙 · 선천성이상 자녀 의료비 지원합니다"

37주 미만 · 2.5kg 이하 · 생후 24시간 내 '긴급수술' 등

청주시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정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가 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67월 이내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이다.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출생)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미숙아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보건소에서 받는다.

보은, "우울증 등 진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보은군은 이달부터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1인당 100만 원까지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조기에 질병 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한국자살예방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성림 보은군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효과가 높고 사회로의 복귀가 빠른 질환"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 조기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월 · 금요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목요일 오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해 언제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암생태 · 중흥공원에서 물놀이 하세요"

청주시 무료 물놀이장 운영

지난해 어린이학기간 운영된 청주 문암생태공원 물놀이장 모습이다.

청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문암생태공원과 용암동 중흥공원에서 무료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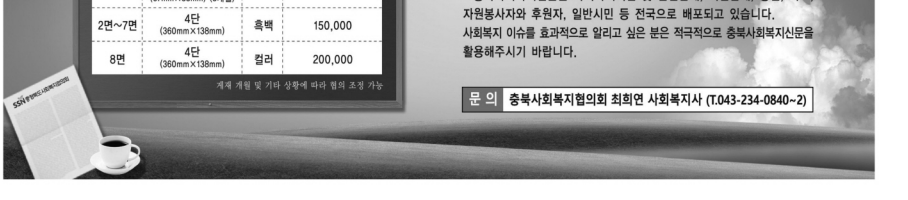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영유아에게 한해 부모와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물놀이장 1회 최대수용인원은 문암생태공원 300명, 중흥공원 150명이고 요금은 무료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 휘소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0:00~12:00, 13:00~15:00, 15:00~17:00)로 중간 정비 시간과 이용자 교대시간이 있다.

시간은 갖는다.

입장은 선착순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어린이는 우선 입장할 수 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1만6000명 키운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 500명 이상 전공자 육성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만들고 이끄는 청년 사회적 경제 기업가를 앞으로 5년 동안 1만6000명 키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학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과정을 늘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간 1000팀까지 선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세부 실행대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지원기간은 최대 2년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청년 사회적기업을 위한 '혁신공간'을 만들어 자금과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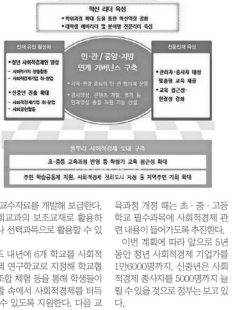
창업지원 규모도 지난해 500팀에서 올해부터는 연간 1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민 · 돌봄 · 문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반복한 '신중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도록 지원한다. 전국 폴리텍의 신중년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을 제공하고, 의계 중장년 일자리 취업센터에서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관련 교육과정도 늘린다.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 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명의 학부 전공자를 배출하는 계획표다.

초 · 중 · 고등학생에게도 사회적경제를 가르친다. 우선 올해는 교육부가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는 초 · 중 · 고등학교 필수과목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도록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만들어 500명의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만들어 500명의 사회적경제 전공자를 배출하는 계획표 종사자를 50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비 전
인재중심에 기업문화를 통한 사회 공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핵심 대책 목표
• 학생과 청년 등을 위한 학교부문 강화
• 대학을 매개로 한 본격 전문가의 직업
인재 공급 활성화
• 청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 사회적기업 활동증진
- 사회적협동조합 육성법
• 신중년 근로 확대
- 사회적경제분야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민·관/중앙·지방 연계 기반조성 구축
• 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연계 및 구축
• 관내 주요 중심지 인 · 민 협의체 구성
• 관내 주요 중심지 인 · 민 협의체 구성
• 관내 주요 중심지 인 · 민 협의체 구성

2018 건강한 노인! 당당한 충북!

충북노인건강대축제 성료
건강체조·실버밴스 경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이 주최한 '2018 건강한 노인! 당당한 충북!' 제1회 '충북노인건강대축제2018'가 지난 6월 22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9개 시군 13개 기관 28개 팀 800여명의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순위와 경쟁을 떠나 참여한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점과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영지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어르신이 더욱 건강하고 당당한 시외가 되기를 염원하고 격려하였다.

본 행사는 1부 장품 · 사물부문 경연과 2부 건강체조부문, 전통무용부문(장수춤, 한국무용), 실버댄스부문(댄스스포츠, 에어로빅)에 총 28개팀이 참가하여 경연대회를 펼쳤다.

종목별로 오늘도 청춘상, 당당한 도전상, 트거운 열정상, 감동의 물결상, 노년의 품격상, 함께한 우정상, 빛나는 미소상을 수여하였고 품품 · 사물 부문 가졌노인복지관 (은세계)팀, 건강체조부문 파상근노인복지관복지관 (언제나청춘)팀, 전통무용 부문명락노인종합복지관 (한얼무용단)팀, 실버댄스 부문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22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은 6월 22일 '충북노인건강대축제 2018'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인종한복지관(금월봄)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한편,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시니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과 청주시사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인자살예방 홍보캠페인 등의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제스트핫크루 댄스팀(SMS댄스학원)의 파워풀한 퍼포먼스 공연과 추억의 7080 세스트 연주와 노래는 학창시절을 회상하고 모두가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등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충북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통하여 더욱 알찬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KMA 큰마음어린이도서관 개관

교육·강연 나눔기금으로 용암사회복지관에 개관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성호)에서는 2018년 3일 용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KMA 큰마음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국내 최고의 직식 서비스 기관인 KMA 한국능률협회(이하 KMA)가 다양한 교육과 강연을 통해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을 지원받아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KMA 최원석 부회장, 월드비전 청주지회장 정현교 회사, 마을교회모임 회장 이근행 목사, 청주시 복서문화진흥위원회 신태용 위원장, 청주교육지원청 행복지원센터 양향용 센터장, 용성초등학교 정해종 교장, 상당초등학교 구본영 교장,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협의회 방재윤 회장, 이수철 고문, 월드비전 충북지역본부 김용식 회장, 구연굉 이사, 지역주민모임 모두주인공 위원, 용암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장우택 교회위원 보좌관 있효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관식에 참석한 최경석 대표는 "어렵게 얻었던 책 한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며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큰마음'이라는 이름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에 더 힘스겠다."고 전했다.

또한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청주교육지원청 양향용 센터장 등 참석한 내빈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꿈꾸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런 지원들이 더 많이 성장으로 좋겠다"고 전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KMA 큰마음어린이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교육생 모집

자살예방 돕는 사람으로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 교육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하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으며 생명지킴이 양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대상자의 자살예방을 돕는 사람으로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9시부터 20시까지 1시간동안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단체교육은 일시 및 장소 조율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진행 후, 충북 생명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이 있고, 추후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와 활동캠페인 부스 및 심화교육 등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070-4948-0808)를 이용하면 된다.

청주행복네트워크 Happy Bus Day 협약

청주행복네트워크(센터장 김창수)와 남청주농협(조합장 이길용)은 15일 2018년 'Happy Bus Day' 업무협약식 및 희망버스 개통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통식에 김창환 남이면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희망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이 매우 성황이게 진행되었다.

청주행복네트워크와 남청주농협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희망버스 운전기사 2명을 '우리마을 행복지킴이'로 위촉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란 봉선을 하늘 위로 날리는 용선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희망버스 부르릉' 사업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내 마을버스를 활용하여 매달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보건복지정보 제공하고 보충형 상담을 진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청주행복네트워크 김창수 센터장은 "앞으로 희망버스가 포함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실현하는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청주행복네트워크와 남청주농협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희망버스가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장애인평생교육사업 도예교실 실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경미)에서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사업 도예교실을 실시한다.

도예교실은 7월 11일부터 10월 17일, 10:00~12:00 매주 수요일 2시간 동안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예교실은 여성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흙을 통해 도예활동을 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에게 예술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복지관에서는, 도예교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예술 활동 참여 증진 및 자존감 향상과 사회참여도 상승으로 삶의 질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관 3층 준누리홀에서 진행되며 12주(주1회, 2시간)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 (☎043-856-1102)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는 5일 청주시 복문로 소나무 길에서 충북여성재단 권수애 대표이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충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충북지방경찰청 등 32개 유관기관 · 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보라데이LOOK AGAIN'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라데이 캠페인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행사로 명랑 조동연 선생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행사취지 설명, 결의 문 낭독, 6개 단체의 폭력예방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이 소나무길에서 철당간까지 함께 걸으며 도민들에게 캠페인을 실시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보라'는 가정 내 문제를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라는 '쌍안경'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슬로건 'LOOK AGAIN'은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의미이다. 여성가족부는 매월 9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식에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보라데이 송 가사처럼 "이주 가깝은 사람 있어 즐겁게 웃고 또 어렵 남은 쓰려면 울기도 하고 쉬운건 하나도 없기에 주변에 관심을 갖고 주변 세상을 돌아봐야 한다며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천,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동 · 은상 수상

제 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이 '2018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컴퓨터활용 부문과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 부문에서 동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북지부가 주관, 충북도내 최고의 기능장애인을 발굴하는 축제의 장인 대회로 올해 31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시각디자인, 제과제빵, 컴퓨터수리 등 21개 종목 185명의 선수가 참가해 컴퓨터활용 부문에서 박준상(54)씨가 동상을 워드프로세서 부문 최단비(30)씨가 은상을 수상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2년부터 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043-652-0900~3) 또는 정보화교육실(☎070-4014-391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찾아가는 시군순회교육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이석 센터, 센터장 이화정)는 26일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400번째 찾아가는 사회복지 법정교육을 진행했다.

2006년 센터가 개관한 이래로 각 시 · 군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을 직접 찾아가 기관(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존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외에도 여러 교육들을 2016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사회복지인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충북도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충청북도의 사회복지법인 · 시설(기관)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 이외에도 명정 · 회계교육,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교육문의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정책연구팀(☎043-239-890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제 봉사도 저축하시고
이자로 돌봄 받으세요!

※봉사분야 : 어르신 말벗, 상담, 가사지원, 주거환경개선

제천 사단법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 653-5025
청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265-5305

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36.5만(서울)**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정기준선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 44%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천 원 인상(2.09%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 18년 및 '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35	2,847,307	3,683,150	**4,526,292**	5,355,254	6,138,337
	19년	1,707,308	2,906,529	3,760,002	**4,613,536**	5,457,040	6,320,546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 18년 및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8년	836,068	1,423,654	1,841,575	**2,263,146**	2,677,627	3,069,164
	19년	853,654	1,453,264	1,880,001	**2,306,768**	2,728,520	3,160,273
주거급여 (중위 44)	18년 (43)	718,858	1,224,282	1,583,755	**1,946,257**	2,302,769	2,640,302
	19년 (44)	751,004	1,278,855	1,654,464	**2,029,356**	2,401,488	2,781,088
의료급여 (중위 40)	18년	668,854	1,138,646	1,473,260	**1,810,634**	2,142,102	2,455,323
	19년	682,923	1,162,611	1,504,003	**1,845,414**	2,186,816	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년	501,642	854,123	1,104,946	**1,357,719**	1,606,576	1,841,502
	19년	512,192	871,959	1,128,000	**1,384,603**	1,640,112	1,896,163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급여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전면개정 내용 >

구분		1차 (개정)	2차 (법률, 하위법령)	3차 (지침경정)	향후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 음 5만 원
	외래	1,000원	1,5원원	2,00원원	5,0원	
2종	입원	1원	1원	1원	-	국 가 환급 원
	외래	1,000원	1원	1원	5,0원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 '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외)시	3(중소도시)읍,면	4 (그 외 지역)
1인	23.3 (+2.3)	20.1 (+1.4)	16.3 (+1.6)	14.7 (+0.7)
2인	26.7 (+2.2)	22.6 (+1.6)	17.8 (+1.2)	16.1 (+0.6)
3인	31.6 (+2.6)	27.2 (+1.8)	21.3 (+1.5)	19.4 (+1.0)
4인	36.5 (+2.3)	31.7 (+2.0)	24.7 (+1.8)	22.0 (+1.2)
5인	37.7 (+1.1)	32.9 (+2.1)	25.8 (+1.8)	22.9 (+1.1)
6인	44.1 (+0.8)	38.9 (+2.5)	28.6 (+2.0)	25.7 (+1.5)

* 괄호는 '2018년 대비 증가액임
* 거주형태가 월세인 경우 기준임 (전세 등은 한계월 월 임대가 기준임임 대 참조)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을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 원 한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중이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을 통해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 부교재비 · 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 연 2회 본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늘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

❶ 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가 주요내용이다.

▶ (단기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노(세)-노(세) 부양' 장애-장애 부양인 경우('17년 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년 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년 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되었다('17년 11월).

1단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18년 5월 말 기준 생계 1,812가구수, 4만 명, 의료 1,6만가구(1.8만 명), 주거 1,5만가구(2.1만 명)로, 시행 이후('17년 11월~'18년 5월) 전체 신규 수급가구는 8.7만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7.9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취약계층 보호기능도 활성화하여, '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 결정된 인원은 총 4.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2.1만 명) 대비 약 35% 증가했다.

❷ 보장수준 강화

'18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생계급여는 '18년 1월부터 1.16% 인상되었고, 당초 '18년 시행예정이었던 이자소득 공제 확대(연 12만 원→24만 원), 대학생 ·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확대는 '17년 4월부터 일찍겨 시행하였다. (근로소득 중 월 20/3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던 것을 월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근로소득 한도는 동일)로 확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18년 1월부터 급지별로 2.0~4.6% 인상하였으며, 자가수선유지 위한 급여도 8%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신규지급하고, 부교재비의 학용품비도 인상하였다.

초등학생 연 11만6000원, 중 · 고등학생 연 16만2000원(고등학생 교과서 · 수업료 · 입학금 별도 지원) 의료급여는 치매 · 아동입원 ·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17년 11월에)하였으며, '18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3종, 연120 →60만 원),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심금병심 급여화(심금 · 종합병원 2~3인실) 등을 통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❸ 근로빈곤층 강화

'18년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로 인상(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기준)되었고, 자활근로 입자리는 '17년 4만 1천개에서 '18년 4만6,500개로 확대하고자 했다.

'18년 4월부터 청년(청장)기술 통장을 도입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생계급여 수급 청년(15 ~ 34세)이 통장에 가입하면 근로 · 사업소득액을 추가 공제(10만 원)하여 봉 급액을 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 지원(3년후 약 1,500만 원 적립)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중 조건부과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❹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국조실 · 복지부 · 교육부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1)3월 1일)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중이다('18월~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복지 사각지대 제거에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였고, 아울러 사각지대 및 주민의 복지, 건강수요 발굴 및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17년 2,619개 → '18년 5월 현재 3,382개(전체 읍면동의 59%) 추진 중이다. 단전 · 단수 등 빈때이터(14개 기관 27종)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공공 · 민간 복지자원 연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읍면동(5,500개)으로 "찾아가는 보건 · 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공무원 · 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22년)하여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❺ 직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작년 '어금니아빠' 사건을 계기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직장급여 TF(반장: 복지정책관)를 구성 · 운영하고, 고액자산가 등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급여중지 · 삭감 등 후속조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등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 른 '18년 예상 화보, 주거급여별 개정등을 완료하였고,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6월)하였으며,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이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자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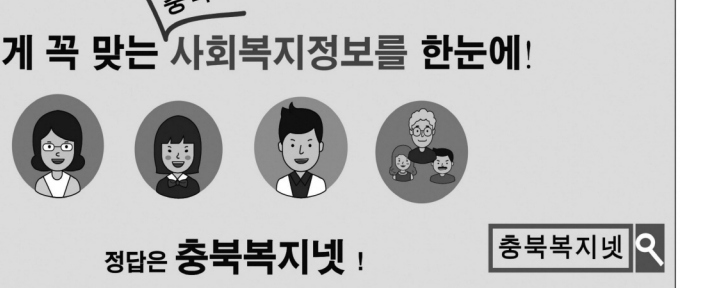
또한, 고소득 · 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심의 ·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층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출처-보건복지부)



칼럼 Column

4차 산업혁명만큼 중요한 '정보 보호'

사물 인터넷·인공지능 등 IT분야 발전 따라 해킹 수법도 진화
텍배로 위장한 메일 랜섬웨어·IP 카메라 해킹 등 피해 증가
보안 중요성 인식·생활화 필요… 정기 백업·메일 확인 철저히

이 주 철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과장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AI 등 IT분야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찬으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의 상반기가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보안 위협은 무섭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보안의 위협성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아프거나 다치는 것과 병원의 치료비가 걱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것을 피하거나 보험을 가입하여 걱정을 덜게 됩니다. 이처럼 보안 또한 예방조치를 통하여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야 정보보호 이슈를 통하여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평소의 예방 조치를 통하여 보안의 생활화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세계적 나오고 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긍정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IP카메라의 해킹이 언론에 보고되고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영상 또한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현재는 IP카메라의 보안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킹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IP와 IP게임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거나 손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도어락, 스마트 가전, 스마트 홈 제어, AI 스피커 등 많은 IoT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IoT 분야는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보안의 작은 관심이 우리 생활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 시키거나 피해를 입히고, 그것을 복구해주는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랑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요구합니다. 작년에 가상화폐의 가격 폭등과 현재까지 급증하고 다양해지는 랜섬웨어의 유포는 아예 심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랜섬웨어는 작년에 이어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유포방법 또한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더 조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엠바조에는 인사담당자 메일이 이메일로 위장하여 보내거나, 택배 메일 등과 같이 아무 생각없이 클릭하게 되는 메일로 위장하였습니다.

메일 열람 시 한번 더 신중하게 살피고, 첨부파일은 확장자를 잘 체크하고 수상한 파일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자주한다면 랜섬웨어 감염시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모두가 한번쯤은 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의 사건들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SNS 를 불한 5,000만건 유출, 국내로는 작년 해킹시고로 인한 1사사의 4천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2억원 과징금 부과), 경품 행사로 개인정보를 모아서 보험 회사에 판매한 F사사의 유죄 판결 등 개인정보의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보호는 관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조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 업무 시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개인정보보호에 한발짝 다가가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는 지방의 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어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격의 주요 통로가 되는 웹(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통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형 곤충 방제하여 현장 컨설팅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센터를 활용하여 정보보호에 한발짝 더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 일상에서 지키야 할 보안 십계명

1. 정기적 백업과 별도 관리
2. 보안 업데이트 필수
3.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일 등은 무시(필요하다면 꼼꼼히 살피기)
4. 백신의 사용과 업데이트
5. 링크 함부로 클릭하지 말기
6. 공공(무료)와이파이로 모바일 웹접 하지 않기
7.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8.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9. 개인 및 공용 업무 PC, 노트북 의 정기적 보안점검
10. ID와 비밀번호 관리

칼럼 Column

상생하는 기쁨 '사회적 기업'

하 덕 천
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

2018년 현재, 충북 내에는 14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가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유독 몇몇 기업의 이야기는 나의 심금을 울린다.

얼마 전 많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수의 작은 마을에는 큰 경사가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에서부터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신명나게 노는 전자댄스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이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함을 느끼게 한다. 이 기업은 다름 아닌 사회적기업(주)휴먼케어와 (주)나무리아이티였다.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는 돌봄 사회적기업은 휴먼케어 외에도 가온, 사랑인, 보람 등 다양한 기업이 있다. 이들의 사례를 듣고 있으면 한편의 휴먼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

또한 충북 내에는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커피전문점으로의 입자리 창출 및 교육을 돕고 있는 충청는 복지재, 장애인들의 이용 수단인 활발이 돕의 보장구를 장애인들이 직접 수리하는 '사랑클래스' 등은 복지국가의 사각지대를 해결기는 기업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해를 랩파이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점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재정을 단순한 보조금 형태의 시혜 차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활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소위 복지급여를 근로와 연계하는 방식의 복지는 여동적이다. 이렇듯 사회복지가 진 간지보과 결합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농촌과 도시에 있어서의 지역재생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등 편중된 지본주의의 어영함으로 시장 경제는 침체일로이다. 올해 1분기 가장 소하수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이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갔다고 한다. 이는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 복지정책을 적극 강화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인만 남은 농촌과 소도시 그리고 양극화의 나락으로 떨어진 취약계층과 빈곤지역을 어떠한가?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매일 만나는 현장의 현실은 극명하기에 더욱 사회적 책무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 농촌과 도시의 빈곤지역들은 지역경제가 무기력함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해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피폐하다. 이러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재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답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경제를 일으키는 해결나기야 할 길은 많지 보인다. 사회적경제조직들 변방에 있는 지표라는 사회적 인식이 구성원 자체가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의 낮은 수가로 인하여 근로자 인센티브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수가 등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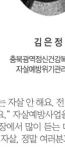
공공영역의 확충,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규제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국가의 책무다. 이런 정에서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환영할 일이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인재육성 방안도 제시하는 등 늦은 감이 있지만, 인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여건의 성숙,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장되고 있는 이때! 정부의 전면입불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특성을 반영한 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농촌과 도시의 지역재생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중차대한 기여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 건설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이 모두 사회적기업가가 되는 날, 우리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칼럼 Column

자살 예방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최근 5년간 7만명 사망… 개인·사회 힘 모아 예방책 실천해야
본인 마음 건강 돌아보기·주변인 자살 경고신호 살펴보기 중요
정신건강복지센터·위기상담전화서 전문가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김 은 정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위기관리팀장

"자는 자살 안 해요, 전 자살이랑 상관없어요." 자살예방사업을 하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많이 듣는 대답 중 하나입니다. 자살, 정말 여러분과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6만 9,026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그들의 가족·친구·동료는 극복하기 힘든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살이라는 선택은 자살시망자 본인 뿐 아니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자살예방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건강을 잘 돌보고, 마음이 힘들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가족·친구·동료의 생명지킴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지킴이란, 내 주변에서 자살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예방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15년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표한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80.4%가 사망 전에 주변 사람에게 경고신호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위험신호를 발견하면 많은 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을 밝혀 주는 생명지킴이가 된다면 자살은 반드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 전문기관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에는 모든 시·군·구에 14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기관이며 이어들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은 일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실천과 전문기관의 노력이 함께 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북도민 모두가 생명지킴이라는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을 밝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자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탐색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일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시설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밀접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방인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wma7259@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청로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층간소음과 분쟁해결

원영안 변호사

Q.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층에 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위층에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실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아파트 층간소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파견을 전진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분쟁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린 입장 · 조정 · 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영주시 민원조정과

인사동정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김학규씨

충북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지난 1일 김학규 원장이 취임했다.

김학규 판매시설원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하였다.

김 판매시설원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자립기반 조성등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든 관심과 애용을 부탁드린다"며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꽃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복사단

"농촌 재가장애인 일손 덜어드려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나래한복사단이 6월 17일 재가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진행하였다.

나래한복사단은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촉된 신규 봉사단체이다.

나래한복사단 단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직원 간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봉사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지원을 약속하며 나래한복사단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기대해본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위촉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pcwss@chol.com)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루르피세븐]2018 코비아넷 장애인지원서비스료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인력 : 14명(치료지원금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포함/교정 및 전신마취비용 미포함)
※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보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 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dc01@purme.org)
· 신청기간 : 2018년 7월 2일 ~ 2018년 7월 31일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소개-배분사업-배분일리미에서 다운
- 참고 : purme.org

[아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한]대치그룹과 함께하는 다목다목 프로젝트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1. 맞춤형 상담지원 : 체류, 한국어교육, 학교 진학, 한국생활 등 상담지원
– 대상 :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2. 심리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전문기관 연계, 진행내용 지속 관리
– 대상 :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3. 가족상담 지원 : 가족 내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성 증대
– 대상 : 가족상담이 필요한 9~19세 이주배경청소년 및 그 가족
4. 집단상담 지원 : 집단 역동성 활용을 통한 심리치료 효과성 증대
– 대상 : 9~19세 이주배경청소년을 포함한 집단
· 신청기간 : ~19년 4월 (수시 접수 가능)※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개별 · 가족상담· 외래서비외인 서명 필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치료기관 소견서 및 심리검사결과지(해당자만)
– 집단상담 지원 : 외래서(외인 서명 필수), 프로그램 계획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팩스 발송 (E-mail : data@datalk@rainbowyouth.or.kr, Fax : 02-733-7586)
- 문의 : 통합지원팀 070-7826-1571, 070-7826-1537
- 참고 : www.rainbowyouth.or.kr

[사]그린라이트]2018 타이기즈 리브투게더 9월 문화나눔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사업명 : 2018 타이기즈 리브투게더 9월 문화나눔지원
- 접수기한 및 제출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2018년 7월 30일(월)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tigerslove together@naver.com)
3.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3) 시설신고증 혹은 시설허가증 사본
4. 발표일자 : 2018년 8월 10일(금) 예정
- 신청자격 : 장애인 지원 기관 및 시설 - 아구단법 및 공정경쟁, 1브깝 여행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
- 장애인 30명 이상 (단당자 및 인솔자 등 여행참가 모든 인원)
- 지원내용
1. 여행기간 : 9월 중 기관 희망일자 (단, 1박2일 필수)
2. 여행테마 : ① 전라남도로 여행 떠나자! /② 수도권으로 여행 떠나자!
3. 지원내용 : KIA타이거즈 야구경기 관람(필수), 기아자동차 공장견학 등 1박2일 자유여행
4. 지원예상 : 2,800,000원
- 참고 : www.green-light.co.kr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사회복지재단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신속하게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개보수비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접수 운영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assan-sos@amc.seoul.kr
- 문의전화 : 02)3010-2563
- 참고 : www.asanfoundation.or.kr

[재)해비브아나눔] 2019년 (재)해비브아나눔 공모배분사업

- 신청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2018년 9월 29일(금)
- 배분분야
– 해외 : 해외지역공동체개발사업
– 국내 : 소규모단체지원사업
– 기획 : 사각지대아주민사업, 청년의미래지원사업, 보호처분소년지원사업, 자살시도환자지원사업
– 나눔공유봉사원사업
- 설명회 : 7월 13일(대구), 7월 18일 ~ 8월 29일(온라인설명회)
- 참고 : www.habo.or.kr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명칭 변경 공모 결과 공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진행된 명칭 변경 공모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선정되었음을 공지함.

- 변경 전 : 장애인활동보조인 -> 변경 후: 장애인활동지원사

[S.O.S-솜씨]장수술비 후원 사업

- 후원대상
1.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2종)
2.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후원내용
1.치료비후원(수술비, 검사비)
2.공동 간병일 제공
3.치료지원(거동불편환자)
4.재활치료지원
- 제출서류 : 의료지원신청서(본원 양식), 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접수방법
· 팩스 또는 우편접수
팩스 : 032-510-6500
주소: 인천시 서구 경주로 91 JS노솜병원 지하1층 행정실 사회복지팀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사항 : 070-4912-9821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 합니다

대 상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지급금액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월별 가구격 경우 대상 아동 1명당 5만원

지 급 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한 차례를 위해 매일 일주에 신청을 수행합니다.
연속 세대 등록 여행자를 경우에 여러 세대로 신청

만0~1세	만2~3세	만4~5세	전연령
6.20~25	6.26~30	7.1~7.5	7.6~

*신청일이 집중되는 경우 대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 본신과 관련된 관할 시군 구 별도 연락해 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 **청소년 함께단**
관리센터 : 해원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36-2505

▶ **업무보조**
관리센터 : 기아대책 충북지역본부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38-8544

▶ **민요봉사**
관리센터 : 중앙평복요양원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63-8463

▶ **꿈나무들과 함께 놀자**
관리센터 : 늘푸른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7.1 ~ 8.31
전화번호 : 043-851-0990

▶ **청소년 가출예방캠페인**
관리센터 :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31-2676

▶ **내재공원지킴이**
관리센터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16-9810

▶ **이미용봉사**
관리센터 : 의료법인 해람의료재단 충북병원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60-8200

▶ **사무보조**
관리센터 : 청주YWCA
활동기간 : 7.1 ~ 12.31
전화번호 : 043-265-37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복/지/만/평

열정

이창신 www.bokmani.com

올 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하길 응원합니다.